서로 다른 길

김영우/SBS라디오 방송국 PD

20세기가 지나면서 인간이 확인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이성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19세기 과학과 수학의 발달은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다고 믿도록 만들었고 인간이 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인간이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선언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낙관적 희망이 인류사회에서는 떠돌았다.

이 낙관적 희망을 여지없이 깨부순 것이 전쟁이었다. 그 중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은 인간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고 악해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 주었다. 나치스에 의한 유대인 학살, 식민지 국가의 여성들을 강제로 군대위안부에 동원한 일본군 등. 이렇게 인간 이성의 불완전성을 되돌아 보게 한 제2차 세계대전은 수십년 전에 끝났다. 많은 인간에 대한 반성과 후회를 뒤로 하면서, 전쟁이 끝난 후 전쟁의 주범인 독일과 일본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

독일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범죄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사죄하는 쪽으로 일본은 적당히 과거의 잘못을 덮고 지나치는 쪽으로.

지난 12월에 도쿄에서 열린 도쿄 여성 법정은 독일과 일본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 준 마당이었다.

도쿄 여성 법정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의 전쟁 범죄 행위를 여성의 손으로 단죄하는 첫 국제 민간 법정으로 주목을 끌었다.

여성을 전시 성노예(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일본의 전쟁 범죄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열린 '여성국제전범 법정'은 12일 히로히토(裕仁) 천황과 일본 정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5일간의 재판 일정을 모두 마쳤다. 전후 일본은 여성을 중심으로 한 피해 각국의 시민 단체들이 90년대 들어 사죄와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여성을 전시 성노예로 강제 동원한 사실을 전쟁 범죄로 인정하거나 책임자를 스스로 처벌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전후 독일이 10만건 이상의 나치 전범 행위를 조사, 이중 6천건 이상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저지른 과거사를 계속 부정하면서도 아시아에서 맹주로 자리 잡으려는 일본. 이들은 아직도 경제논리를 앞세운 개발론으로 아시아의 피해국들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의 도쿄 여성 법정은 이런 일본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국제사회가 꾸짖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는 의미가 있다. 세계의 지도국이 되려는 국가는 경제력만이 아닌 정직성도 요구된다는 사실 말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는 전후 위안부 관련 문서를 소각하는 등 만행 사실의 은폐로 일관하면서 국제법의 정의에 비추어 마땅히 져야할 법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개인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자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다. 마치 공범자인 것처럼. 외교적 관례를 생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국가의 존망과도 관련이 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애국심이 생길 수 있을지 다시 고려해 볼 일이다.